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10년간 1조 6000억원 투자

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6.1% 인상

## 11대 유망 신산업 등 세계지원으로 민간 투자 촉진

“4차 산업혁명이란 거대한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인공지능(AD), 가상·증강 현실 등 총 9개 분야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선정해 향후 10년간 총 1조6000억원

을 투자할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0월 2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미래’ 국제컨퍼런스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에 대독한 축

사에서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성장률과 교역량의 정체로 대외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대내적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위축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성장이 하락하고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위기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수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제도와 지능정보산업 기술을 보완해 간다면 충분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창조경제로 일관된 창의와 혁신의 토양 위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신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지능정보,

로봇, 미래형 자동차 등 11대 유망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대한 세계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융복합 신산업 규제는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개선하겠다”며 “전국적으로 풀기 어려운 규제는 규제프리존을 지정, 융복합 제품과 서비스에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에도 대비해 나가겠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인정성을 높일 수 있는 탄력적인 고용정책을 마련과 함께 시대에 필요한 창의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을 위해 초중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소프트웨어 중상대학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한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 승인요청에 대해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6.1% 인상을 승인했다

고 10월 28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은 작년 9월 이후 1년 2개월만의 첫 요금인상이다. 요금에 적용되는 환율이 1172원에서 1106원으로 5.6% 하락했음에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36달러에서 45달러로 25% 상승해 누적된 인상요인을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반영했다.

##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 어르신 79% 접종 완료

질병관리본부, 11월 안에 모두 접종 당부...백신 추가 공급

전국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 어르신 중 약 79%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10월 27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683만명 중 78.9%인 547만명이 무료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절기(2016~2017년)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사업목표는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82%로 이번 사업목표와 비교하면 현재 접종률은 96.2% 수준이다.

지난 절기(2015~2016년) 어르신 인플루엔자 총 접종 인원은 545만명으로 접종률은 80.9%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준비된 백신을 모두 사용한 지정의료기관에는 보진표를 통해 백신 추가 공급을 실시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각 지역보건소는 백신이 남는 의료기관의 물량(약 26만 도즈)을 회수해 재분배하고 있다. 또 보건소 비축분인 약 93만 도즈의 백신을 추가 공급해 백신이 없어 접종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중이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백신은 27만명분 이상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전체 백신공급은 부족하지 않더라도 현물공급되는 백신의 특성상 배송에 시일이 걸리고 의료기관에서는 백신폐기에 대한 부담이 없어 가급적 많은 물량을 보유할 요구해 의료기관별 백신과잉 또는 부족현상이 매년 사업 때마다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 종료 시 백신폐기로 발생하는 예산낭비를 최소



##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도 없다

전남학생교육원, 리더십 함양과정 명사특강

전라남도학생교육원(원장 열세 철)은 고등학생 리더십 함양과정 중 명사특강에 순천대학교 박진성 총장을 초청해 ‘리더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고등학생 리더십 함양과정은 2016년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3박 4일 동안 도내 고

등학교 학생회장(부회장) 145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순천대학교 박진성 총장은 명사특강에서 역량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가치에 대해 역설하였다. 특히 오늘이 죽어야 이 미래가 완성(Connecting the

Do's)되므로, 오늘을 성실하게 살며 최선을 다하기(Here & Now)를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강점을 찾아내는 방법(잘 하는 것, 오래 할 수 있는 것, 힘을 얻는 것)을 설명하며, 강점을 바탕으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건강한 재력을 단련하여 도전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했다.

이번 과정을 수료한 능주고등학교 학생회장 정성훈 학생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바람직한 리더십을 정립하고 리더의 조건과 사명 등을 배우고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 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전남의 명예를 드높이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고등학생 리더십 함양과정은 2016년 5월부터 10월에 걸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30명, 2학년 학생회장(부회장) 145명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미래 인재로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김경영 기자 kyy@

## 문체부 “모든 의혹 털고 투명하게 재출발하겠다”

“모든 의혹을 털고 투명한 문체부로 재출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원선 장관이 외부 개입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논란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 및 사익 도모 여부 등을 엄정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된 사업들은 과감한 정리를 포함해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문체부는 조 장관이 이날 건부회의 및 전날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해 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모든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현재의 저성장국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콘텐츠 산업의 육성,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문화융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는 점에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인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 회의 심의 과정 등에서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종 지원금, 계약, 인선 등 관련 시스템 구비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구축·보완하는 한편,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규정에 입각해 엄실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부담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회장 안상선 사장 한승균 발행인/편집인 김진아  
 02-541-2000 팩스02-3444-0119 인선본부 032-429-1000  
 0135-96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55길 30(홍대동)  
 경남지사 055-242-8921 영남본부054-273-3336 미주본부 443-621-2625  
 호남본부 0505-629-3366 FAX 0505-619-3366 전북지사 063-232-3001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서울 1048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저출산 극복 위한 중앙-지방 공조 본격화

행자부·복지부, '제17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개최

시·도별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앙-지방 공조체계가 본격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0월 28일 부산 백스 컨시안스에서 ‘제17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복지부가 지난해 수립한 ‘3차 저출산 대책 추진방향’과 행자부가 발표한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계획’을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저출산 극복은 중앙정부의 노력과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총력대응체계 구축과 지역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실효적 저출산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복지부는 지역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장려금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고용·주거·교육·일가정 양립 등 근원 대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저출산 대책’ 분야를 신설하고 우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전국적 출산 보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고객과 함께 하는 사업 파트너로서 늘 곁에 있습니다

**01 프린팅 파트너의 역할**

- 각종 사무기기의 유지보수 및 A/S
- 전산소모품 및 복사용지의 판매
- 혁신분필

**02 조달담당 파트너의 역할**

- 각종 특별실의 전선조달담당
- 프로क्टर 및 영상기기, 음향 설계공사
- 전자실란, 문서새단기

**03 불용물 처리 파트너의 역할**

- 조달물품의 불용처리 일체담당
- 각종 서류 처리까지 맡김에 해결

불용물처리 및 조달담당자 간담회 참가자들이 간담회 기간 동안 불용물품을 정리하고 전자제품을 위한 불용물품을 정리하고 전자제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재활용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부족하고 폐기처리의 수거비가 부족한 우리 나라에 대해 폐기된 자원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레이저타운**

불용물품 관리전문 Tel.(032)462-3550 Fax.(032)446-2308